로마서 2장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다.

내 모습 속에 보면, 나를 돌아보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긍휼히 여기기 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내 모습 속에 똑같은 모습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예를들면, 전 직장의 과장님께서, 나한테 돼지라고 놀렸을 때,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내가 후임한테 똑같이 놀린 적이 있었다.

누군가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야기 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 역시 동일한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2.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은 외모대로가 아니라. 진리대로 된다.

3.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판단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 앞에 솔직히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훨씬 연약한 모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혹시 내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잘 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기를 원해하신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말씀으로 인해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을 다시 가져야되겠다.

그런 부분이 stressful 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이다.

5.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고집, 회개치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냥 흘러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그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다.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받는 보응은 같은 것이다.

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어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다.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또 아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다.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의 경우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 다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서로 송사, 변명하는 것이 그 양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16.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바울의 복음은 그냥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심판이 같이 있는 것이다.

심판이 의인에게는 시상대이나

악인에게는 심판대인 것처럼

내 삶이 어떠냐가 그 심판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하겠는가 잘 생각해봐야한다.

17.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하고 외치고…

18.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교훈을 받아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또 좋게 여기고

19.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지시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사람으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20.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훈도라고 선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21.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왜 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가.

왜 나는 동일하게 살아가는가…

22.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나도 동일하게 음란한 것을 행하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나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가…

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하셨다.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독을 받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내가 있는 것이다.

25.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할례도, 율법을 행하면 유익한 것이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것이 아니냐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28.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주님, 이시간 주님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불경건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말도 못합니다.

여전히 제 혼자있을 때의 생각과 삶이 엉망진창이요

그러면서도 가식적으로 저를 포장하고 안그런척 살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와있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회개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보고 회개하라고 하니

이건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입니다.

비양심적이고, 뻔뻔하고 죄를 심상히여기고 주님을 귀히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 양심이 어느새 이리도 무뎌졌고

제 순수함이 어느새 이리도 더러워졌으며

저의 마음이 이렇게 절망속에 있었는데

현실을 도피하여

그냥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

죄송합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뻔뻔한 것이였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고 싶으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의뢰드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